

진통과 출산을 내면화하기 시작한 아버지들

여성들만의 고유경험, 남성언어로 해석돼야 민주가정 ①

고란 스웨덴/ 54세. 산부인과의

78년 36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나는 직업상 이런 경험에 익숙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사실은 전혀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이런 정도니 여타 다른 남성들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낯설게 느낄 지 충분히 상상이 간다. 출산문화에선 관점, 언어 등이 모두 여성적이므로 남성은 전적으로 배제당한다. 한 남성은 이를 빗대어 “폐색 질은 가망없는 경기를 뛰는 기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60년대 이후 여성과 남성, 부모와 자녀가 동등 관계를 유지코자 하는 민주적 가정

들이 발전했고 이런 경향은 특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두드러졌다. 물론 이런 현상은 여성운동가들이 전방에 나서서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투쟁한 직접적 결과다.

70년대 후반에 가선 80% 이상의 어머니들이 직업 여성이 되었기에

새로운 아버지의 모델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아버지도 자녀 탄생 시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게 한 74년도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은 자녀 양육의 책임은 탄생의

바로 그 순간부터 남녀에게 동등하게 떨어진다. 부모 한쪽, 특히 여성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풍토는 여성성과 비여성성 사이에서의 아이의 극단적 갈등을 야기

74년도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은 자녀 양육의 책임은 탄생의 바로 그 순간부터 남녀에게 동등하게 떨어진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한 것이다.

시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역사, 사회, 인류학적 측면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많이 행해졌지만

자녀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의 그들 개개인의 생각, 감정, 체험 등에 관해 자세히 연구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 인터뷰 조사 결과 출산을 앞둔 아버지들은 당사자인 어머니 못지 않게 심리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많은 예비 아버지들이 아내의 출산 진통시 이를 흥

내내 따라하는 원시 풍습에서처럼 구토, 두통, 소화 불량 등의 육체적 고통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고통은 아이의 출산과 함께 씻은듯이 사라져 버린다.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의 탄생을 진정한 가정의 출발과 인격적 성장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이로 인한 새로운 책임과 재정적 부담에 대해 우려하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남편들이 집에서는 여간해선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에 아내를 향한 남편의 따뜻하고 적극적인 감정과 생각을 아내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스웨덴은 일찌기 50년대 후반부터 남편이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는 기회를 선도적으로 제공한 국가다. 아내의 출산 과정은 남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도 안겨주지만 적지 않은 걱정도 야기시킨다. 그 중 한 가지는 힘든

출산 과정으로 인해 아내의 성욕이 감퇴할까 우려한다는 점이다.

남녀가 함께 출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지만 이런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위해선 남성 자신이 우선 출산과 아버지 되기에 대해 단단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